

高麗大藏經 正藏에 關한 考察

김 치 우*

목 차

1. 서론
2. 초조대장경
3. 재조대장경
4. 초조본과 재조본의 차이점
5. 결론

1. 서론

고려시대에는 대장경을 세번 주조하는데 첫번째가 초조대장경이고, 두번째가 속장경이며, 세번째가 재조대장경이다. 초조와 재조대장경은 정문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 체제나 성격이 비슷하지만 속장경은 장소가 수록되어 있어서 체제나 성격이 판이하다. 장소란 정문(책)과 주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속장경을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초조대장경에 관한 연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개의 논문은 문헌 중심으로 조조의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런 논문만으로 초조본의 특성을 살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1974년 김두종님에 의해서 일본 경도 남선사 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7년 11월 5일

장의 현존 초조본 3종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으나 그것은 취급종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역시 초조본의 특성을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천혜봉 은사님에 의하여 “초조대장경의 현존본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초조대장경의 특성이 확연히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¹⁾

은사님은 1966년 일본 南禪寺에서 초조본을 실사하고, 고려본을 위해서 전적을 두루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국내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본 대장경을 다량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서 초조본 대장경이 지닌 특성을 밝혀 내게 되었다.

재조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하여 조조된 것으로 현재 그 판목이 남아 있고, 인본이 다수 전해지는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하여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개의 연구는 재조대장경 자체에 대한 것이고 초조대장경과의 차이점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은사님에 의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초조본과 재조본의 차이점을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양대장경이 얼핏 보기에는 너무 비슷하여 그 감식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물을 보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조대장경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판각의 장소와 시기 문제이다. 어떤 분은 재조대장경이 남해분사도감에서만 조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재조대장경이 처음 조조된 것은 강화 본사에서 고종23년(1236)부터이고, 남해분사도감으로 옮겨서 조조된 것은 고종30년(1243)경부터이다. 그러므로 재조대장경이 전부 남해에서 조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각시기마저도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한 언급은 본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고려가 문화국으로서의 국위선양을 의도하던 중, 일대 국란에 직면하자 그 국란타개를 발원하고 현종 2년(1011)무렵 조조에 착수하여 선종 4년에 완성하였다. 전체경론의 합수는 570함이 될 것이

1) 천혜봉, 한국서지학연구 서울: 동 간행회, 1991, pp. 411-465.

며, 권수는 근 6천권이 되며, 현재 국내외에 모두 210여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판각들이 아주 뛰어나며, 서지학적 가치가 아주 큰 것이다.

2. 1 조조의 경위

고려는 초기에 목판인쇄술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때마침 북송에서는 10세기 말기에 동양 최초로 21질의 개보칙판 대장경이 판각되었다. 그것이 성종 10년(991)에 수입되자, 불교 흥륭국인 고려는 이에 버금가는 대장경을 조조하여 불경을 인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마침 거란의 외침이 있어서 불력으로 국란을 타개하고자 거국적으로 발원하여 대장경을 완성시켰다. 이것이 초조대장경이다. 그런데 그 초조본의 조조시기, 회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주장이 있어서 어느 것이 정설인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경판의 개판 시기, 즉 개조 시기는 현종 2년(1011)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은사님은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池內씨는 개판 시기에 대해 현종이 고비의 명복 천도차 시창한 현화사에서 그 목적을 위해 간행한 바 있는 동왕 11-13년(1020-1022) 조조설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설은 박영수님과 정필모님이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7자나 그 이상으로 된 사찰본 대장경이므로 국간본인 초조대장경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은사님은 고종 24년(1237)에 재조대장경을 조조할 때 이규보가 쓴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보이는 현종 2년(1011)경의 조조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²⁾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종 2년 거란병이 대거 내침으로 인해 발단하였는데, 그 때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가고 거란병이 송악성에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므로 군신과 함께 無上의 대발원으로 대장경의 刻成을 맹세하였더니 그 뒤 거란병이 물러갔다”는 것이다.

즉 현종 2년 거란병의 침입이 있어서 이를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조조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이 해를 바로 초조대장경을 조조한 해로 보는 것이다.

2) 상계서, pp. 415-416

이것은 당시의 외침사정을 참작하면 더욱 뒤받침될 것이다.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현종 2년 정월 초하루에 개경으로 침입해 왔는데, 국왕친조의 교섭으로 동월 11일에 철수케 하고 왕은 2월에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도 3차례의 침입이 있었으나 강감찬이 구주대첩에서 승리하므로 양국간에 평화적 사절이 왕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시 거란의 외침관계, 그리고 몽고외침하에서 이루어진 재조대장경의 조조 경위를 아울러 참작한다면, 현종 9년부터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현화사의 창건 작업과 함께 그 조조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어불성설이라고 은사님은 주장하고 있다. 즉 초조대장경은 복송의 개보 칙판이 도입되어 우리도 그러한 대장경을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중, 현종 2년 거란병의 침입으로 불력에 의해 이를 물리친다는 염원으로 대발원을 세우고 조조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초조대장경은 현종 20년(1029)이 되어서는 상당히 많은 수량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축하하는 장경도량이 회경전에서 대대적으로 베풀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촉진되어 그가 재위하였던 22년까지는 근20년간에 수사적인 표현감을 느끼긴 하나 5천축이라는 많은 대장경이 조조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초조대장경의 완성시기에 관해서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현종 다음에 덕종 4년간, 정종 12년간 재위에 있었으나 장경의 조조에 관한 일은 거의 하지 않다가, 문종조에 와서 장경의 조조사업이 재개되었다. 문종 17년(1063)에는 거란대장경이 들어오고, 동왕37년(1083)에는 수종의 송조대장경이 들어와서 모두 초조대장경에 편입시켰다. 거란대장경은 개보칙판에 없는 것 또는 본문의 異譯, 誤脫, 錯寫가 심한 것을 가려서 새로 새겨 같은 函次 또는 별도의 함차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송조대장경인 宋新譯經論과 貞元續開元釋教錄, 續貞元釋教錄에 入藏된 경론들의 간본은 새기는 대로 누가식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문종은 그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그 해 7월에 승하하였으므로 제2자인 선종이 즉위하여 4년만에 완성시켰다.³⁾ 이것은 동왕 4년의 고려사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잇달아 개국사와 귀법사에서 대장경 刻成의 경축사가 있었고, 흥왕사에서는 大藏殿 落成의 경축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3) 상계서, p. 422.

이것은 초조대장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조조된 것은 그 구대장목록에 수록된 杜函부터 穀函까지의 송신역경론과 그 이하에 뒤따른 경론 즉 貞元入藏經論과 기타 불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때 도입하지 못한 신역경론은 초조대장경의 刊行이 끝난 후에도 수입 추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초조대장경은 현종 2년(1011)부터 시작하여 선종 4년(1087)까지 76년간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다. 이 초조대장경의 회차와 규모에 대하여 小野玄妙씨는 현종과 문종 양조에서 각각 공히 한벌씩 조조하였다는 2회설을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一藏으로 연속되는 것이다. 즉 교정별록 南禪寺 소장목록의 내용 분석과 원용국사비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 등에 근거하면 거란본이 수입된 문종 17년 이전은 구송본을 바탕으로 한 國前本, 그 이후는 국전본에 편입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國宋本과 본문이 다르거나 異譯인 것 등을 거란본에 의거 조조한 國後本 그리고 그 이후의 송신역경론과 정원입장경론 등의 조조본이 합쳐져서 비로소 일장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小野씨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정별록의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 거기에 의하면 전, 후기로 구분하여 전기에는 구송본을 바탕으로 한 국전본, 후기에는 국전본에 편입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國本, 宋本과 본문에 차이가 있거나 異譯인 것 등에 대하여 거란본을 바탕으로 국후본을 조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송신역경론과 정원입장의 경론 등이 각성되어 비로소 일장이 갖추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을 저본대장경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1차는 구송본, 2차는 거란본, 3차는 송신역경론과 정원입장의 불전 등을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조조하여 누가 하는 형식의 편입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초조대장경은 넓게 보아서 전, 후기, 구체적으로 3차에 걸쳐 비로소 하나의 21질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체경론의 합수는 교정별록과 구대장목록에 의하면 570함이 될 것이며, 권수는 의천이 求集教藏疏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 6천권이 되는 것이다.

2. 2 잔존본의 전래

초조대장경은 그 경판이 부인사로 이관 수장되었으나 고종 19년(1232) 몽고군의 병화로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경판의 소실은 그것이 조조되고 나서 1세기반이나 2세기가 지난 뒤의 일이었으므로 인출된 간본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병란 등을 겪으면서 현재 국내에서 전해지는 것은 모두 150여권 정도, 일본에서 전해지는 것은 60여권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래되는 잔존본은 210여권 정도이다.

이 초조대장경은 종래 일본의 南禪寺에서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종수와 첩수는 알 수 없다. 同寺의 일체경목록중에 간년미상이라고 한 고려본이 505종 들어 있고, 중요문화재지정서에 고려본 초판이 310첩 들어 있어서 그 윤곽을 일부 알 수 있을 뿐이다.

1966년은 은사님께서 동사의 초조본 대장경을 7종 실사하였다. 1990년에도 2차로 방문하여 52종의 초조본 역시 실사하였다. 따라서 모두 59종의 초조대장경을 일본에서 실사하게 된 것이다.⁴⁾ 1984년에는 일본 대마도와 일지도에서 대반야경이 다량 발견되었다. 종전에는 이 초조본 대장경이 국내에는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1990년 당시 총 94종 144권이 발견되었다.

그것의 소장처(자)와 권수를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성암고서박물관 29권, 호림미술관 68권, 삼성출판사 2권, 연세대학교 도서관 4권, 朴順分 1권, 宋成文 1권, 趙明基 8권, 李正子 3권, 姜泰泳 1권, 其他數名個人 27권 등이다.⁵⁾

기타 수명의 개인 27은 은사님의 감정을 받은 후 현재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 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소장처(자)만 알면 초조본 대장경이 쉽게 접근이 될 것이므로 참고삼아 열거하여 보았다.⁶⁾

2. 3 서지적 특성

초조대장경의 서지적 특성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초조대장경 현존본이 얼마간 발굴됨으로 인해 그것을 바탕으로

4) 상계서, p. 428.

5) 상계서, pp. 433-438.

6) 상계서, p. 433.

한 복송본과 거란본의 형태나 특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 ② 초조본이 송본, 거란본을 그대로 번각한 것이 아니라 송본을 바탕으로 한 경우는 臨寫등의 수단을 취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손질을 가하여 판각했고, 거란본을 바탕으로 한 경우는 우수한 본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개판했다. 이것은 초조본 인쇄술의 독자성을 최초로 구명하는 것이 된다.
- ③ 御製秘藏詮에 들어 있는 長幅의 판화를 송본과 비교하여 판화의 위치가 다르고 판화기법이 섬세정교함을 보면 초조본의 판화기술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전기의 인쇄문화, 판화미술, 불교문화, 문화사 및 서지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⁷⁾

3. 재조대장경⁷⁾

재조대장경은 몽고군의 침입으로 부인사 소장의 초조대장경판이 고종 19년(1232)에 소실되자 역시 불력으로 이를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대장도감에서 재차 조조한 한역정장이다. 고종 23년(1236)부터 시작하여 동왕 38년(1251)까지 16년간에 걸쳐서 완성하였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이며, 총663합 1,562부 6,778권(6,783권)으로 경판 총수는 8만 1천여매가 된다. 판각술은 초조대장경만 못하나 본문만은 동양의 어느 대장경보다 우수한 것이다.

3. 1 조조의 경위

고려는 초기부터 거란과 여진이 침입하였고, 고종 때에는 몽고군의 침입이 있었다. 고종 18년(1231)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그 다음 해인 동왕 19년(1232)에 강화로 천도하여 그 침입에 항거하였다. 그 때 부인사에 소장되었던 초조대장경판이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그 외침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재조를 시작하여 완성시킨 것이 바로 재조대장경으로, 현재 보통 팔만대장경이라 하며,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7) 상계서, p. 455.

재조대장경의 조조지역에 관한 기록은 이규보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 丁酉年行條에 나타나 있다.⁸⁾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왕이 재집문부백관과 함께 대발원하여 구당관사(대장도감)를 설치하고 간경이 시작되자 고종 24년 정유(1237)에 行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조필역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 고종세가 신해38년(1251) 9월 임오조에 나타나 있다.⁹⁾ 그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38년 9월에 백관을 인솔하고 서문외의 대장경판당에 가서 行查하였는데, 이것은 현종때의 경판이 19년 임진(1232)의 몽고군 병화로 소회됨에 군신과 더불어 다시 발원하여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16년간을 걸쳐 필력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의 두 기록을 보면 대장경 재조 도감의 설치는 고종 23년 병신(1236)이며, 그 후 16년간에 걸쳐서 동왕 38년 신해(1251)에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조 대장도감이 고종 23년에 설치되었지만 개관의 준비과정 때문에 그 다음해인 24년부터 개관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개관의 준비과정이란 판각용 목재를 베어 적당한 크기와 부피의 판목으로 썬서 염수에 담가 결을 사기는 일을 되풀이 한 다음 건조시켜 뒤틀리거나 비틀어지지 않게 하고 각자하기 쉽게 함과 아울러 부식과 충식도 예방하기 위한 작업 그리고 연판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재조대장경은 수기법사가 초조대장경을 비롯 개보칙판 및 거란판 대장경과 대교를 하고, 각종의 불경목록까지 두루 참고하여, 본문의 오탈, 착사, 이역 등을 논정하여 교정 또는 보수한 다음 번각하고, 새로 추가한 것이다. 구대장목록이 들어있는 更函 앞에 수록된 수기법사의 高麗國新雕大藏板正別錄에 의하면 수정 변동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초조판에 없는 것을 거란판에서 새로 추가시킨 것. ② 초조판에서 이중적으로 수록한 것을 삭제한 것. ③ 초조판의 내용이 부족하여 거란판으로 대체한 것. ④ 초조판의 합차를 이동시킨 것. 등이며, 更函 이후

8) 천혜봉, 나여인쇄술의 연구 서울:경인문화사, 1979, p. 98.

9) 상계서, p. 98.

의 霸函부터 洞函까지의 것은 초조판각이 일단락된 뒤 또는 재조판이 조조될 때 새로 추가한 것으로 이 재조대장경목록에서 처음으로 실려진 경론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인 宗鏡錄 이하 15부 231권의 장소와 僧傳 자료는 고종 35년(1248)부터 동왕 38년(1251)까지에 판각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 고종 2년(1865)에 해명장웅이 처음으로 보유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재조대장경은 고종 23년부터 동왕 38년까지 사이에 조조되었는데 그 사업은 강화에 선치한 甸當官司인 대장도감이 주관하였으나, 그 외에도 남해 분사도감을 두어 分管케 하였다. 그런데 박상국씨는 재조대장경을 전부 남해 분사도감에서 조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과오임이 지적되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분사도감의 간기와 지어가 들어 있는 불경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중 특히 宗鏡錄 券第27에는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분사대장도감에서 봉칙조인한 동국이상국집의 末尾에 河東郡監務인 李益培가 언급한 내용을 기록한 발에도 “予幸守比郡以家一藏一本讐板流通耳”에 이어 끝에 진주목부사 全光宰가 서명하고 있다. 그 분사도감은 진주목의 관할이며 하동군의 이웃에 위치한 남해도에 있었음이 틀림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남해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것이 분명한 자료는 많다. 祖堂集, 搜玄記, 華嚴經搜玄記에는 각각 “乙巳歲分司大藏監雕造 또는 開板”의 표시가 있다. 또 증도가사실, 금강삼매경론, 선문념송집 등도 남해 분사도감에 개판된 것이 분명한 경전이다.

증도가사실 권제3에는 고종 35년 무신(1248)에 慶尙普安東按察副使로서 대장분사 책임을 겸임했던 全光宰가 진양공 최이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개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므로 대장분사도감에서 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금강삼매경론 권상중하 중에는 鄭晁의 지어가 있다. 거기에 의하면 고종 31년 갑진(1244)에 정안이 당시 강화정권을 전횡했던 최이와 관련시켜 개판했음을 알 수 있다. 정안은 최이의 외손을 양자로 삼고, 남해에서 살면서 불을 好尙하여 사재로 장경을 分刊하였다고 하니, 비록 사재로 비용을 충당했지만 그 간행은 분사도감에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정안은 원래 하동 사람으로 고종 38년 최항을 비방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선문념송집 권제30 말미에 수록된 두개의 발문에 의하면 萬宗의 힘으로 海藏分司에서 모공하여 간행하였으며 진양공의 延壽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종은 최이의 서자이므로 역시 그 당시 분사도감에서 그의 힘으로 개판해 낸 것이다.

분사도감을 남해도에 설치한 것은 강화경과 같이 불의의 외침을 피하기도 쉽거니와 경관용 목재인 후박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그것의 수송도 매우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¹⁰⁾

분사도감은 고종 30년에 설치되어 초창기에는 최우가 도우고, 그 다음에는 최이가 36년 죽기전까지 도왔으며, 고종 36년부터 후반기는 최항이 도왔다.

3. 2 경판의 전래

재조대장경의 함수, 부수, 권수는 얼마나 되며 경판이 어떻게 하여 대장도감 본부에서 해인사로 전래되었는가 요점만 살펴보자. 구목록의 天字부터 洞字까지의 639함에 편입된 장경의 총부수는 1,547부 6,547권이요, 추가목록의 洞字부터 務字까지 그리고 중복된 祿字부터 務字까지의 24函에 들어 있는 15부 231권(查函 搜玄記 券1-5의 上下 分卷을 10卷으로 본다면 236卷)을 합치면 총663함 1,562부 6,778권(6,783권)이며, 그 경판 총수는 8만 1천여매가 된다.

경판이 강화도의 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판당에서 충숙왕 5년 이후의 어느 때에 同島의 선원사로 이안되어 오던 중 조선 태조 때에 이르러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해 해인사로 옮기도록 했던 것 같다. 그것의 이안은 조선 태조 6년부터 시작하여 익년인 7년에 완료되었다.

3. 3 서지적 특성

재조대장경은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거의 초조본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판식 항자수 자체 등이 대체로 동일하다. 그 중 자체는 주로 구체의 방필로 되어 있으나 경에 따라서는 구체의 원필이 곁들여진 점도 양자가 비슷하다.

도각술은 초조본을 번각하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정교도가 떨어진다.

10) 천혜봉, 전게서, p. 108.

그러나 초조본은 그대로 변각하지 않았다.

초조본을 저본으로 삼으면서도 송본과 거란본을 반드시 대교하였으며, 송신역경론, 개원록, 정원속개원록 등까지 두루 참고하고, 본문의 오탈, 착사, 이역 등을 논정하여 교정 또는 보수하고 또 경명 역자명, 권수, 합차의 이동까지 바로잡은 다음에 변각하였다.

그러므로 재조본과 초조본의 본문을 대조해 볼 때 경마다 문자의 차이가 발견되며, 그 중에는 장문이 보조된 것까지 있다.

비록 정교도는 초조본에 미치지 못하나 본문만은 동양의 어느 한역 대장경보다 우수함이 국내외에 정평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없이 수입해 갔으며 불교전파의 기본경전으로 삼아 왔다. 한 때는 경판 자체를 모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긴 일까지 있었다. 그와같이 일본에서는 우리의 대장경을 의존하고 부러워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1613년에 착수했던 “北野經王堂板大藏經”이 고려의 재조대장경의 판식을 따랐다. 그리고 19세기 말기부터 20세기 초기 사이에 간행한 “縮刷大藏經”이라든가 “大正新修大藏經” 등이 모두 우리의 재조대장경을 정본으로 삼고 송본, 원본, 명본의 대장경으로 校合하였다. 이들 대장경이 현재 도처에 널리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조대장경의 본문이 얼마나 우수하며, 불교문화 연구와 발전에 끼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4. 초조본과 재조본의 차이점

초조본은 재조본과 마찬가지로 판심이 없는 권자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無界로 刻字되어 있다. 항자수는 초조본과 재조본이 일반적으로 첫장은 22행 14자이고, 그 이하 장은 23행 14자로 되어 있다. 다만 초조의 “대반야바라밀다경”과 재조의 三本 “대방광불화엄경”만은 그 항자수가 각각 다른 것이 형태상으로 유의해야 하는 첫번째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전자인 초조와 재조의 반야경의 항자수를 비교하여 보자.

	첫장 본문	기타 각장 본문	비고
초조반야경	24행 14자	25행 24자	타판과 다름
재조반야경	22행 14자	23행 14자	타판과 동일

이와 같이 재조반야경은 다른 경전과 동일하나 초조반야경은 항수가 모두 2항씩 더 많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초조와 재조의 반야경은 각장 본문 위치가 서로 다르며 총장수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에는 후자인 초조와 재조의 화엄경의 항자수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장 본문	기타 각장 본문	비고
초조화엄경	22항 14자	23항 14자	타판과 동일
재조화엄경	22항 17자	23항 17자	타판과 다름

여기서는 초조화엄경은 다른 경전과 동일하나 재조화엄경은 각항 모두 3자씩 더 많다. 이것은 재조화엄경만은 각항 14자의 대장경 형식을 버리고 17자의 國內傳本을 바탕으로 刻成한 것을 알게 한다.

초조본과 재조본이 일반적으로 23항 14자인 것은 거의 같으나, 재조본에 있어서는 본문 재교의 결과 增文이 생겨 24항으로 增行된 것이 있고, 각항의 자수도 15자로 增子된 것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물론 초조본에서도 판각용 필사본의 탈자 錯寫를 바로잡아서 새겨야 한 것은 15자 또는 16자로 증자된 경우도 있지만 재조본에 비하여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국간인 초조대장경이나 재조대장경은 판제, 권차, 장차, 합차가 책장의 앞 또는 뒤에 표시하고 있다. 초조본은 그 표시위치가 대체로 각장 본문 앞 여백에 새겨졌으나, 재조본은 극히 드물게 그것이 초조본처럼 앞 여백의 위치에 표시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각장 본문 끝 여백에 새겨지고 있다.

간기는 초조본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재조본에는 권미제 다음에 “丁酉歲高麗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새겨져 있다. 초조본에서 간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당시 미묘했던 국제관계로 연호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판각의 정교도는 초조본이 송본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으나, 재조본은 초조본보다 훨씬 떨어진다. 초조대장경은 북송개보칙판대장경, 거란대장경, 정원입장경론, 송신역경론 및 국내전본을 바탕으로 판각하였다. 그 개판에 있어서는 북송개보칙판의 매항 14자 형식에 준거, 판서본을 마련하여 조조하였는데, 그 판각기법이 아주 정교한 편이어서 자체가

정연하고 자획에 勁方正한 筆力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각항 17자의 거란본과 국내전본에 의거하여 새긴 판본을 보면 그 기법이 뛰어난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재조대장경은 대부분 초조대장경 본문의 誤脫을 바로 잡은 다음, 뒤집어 붙이고 거듭 새긴 것이기 때문에 판각의 정교도가 초조대장경보다 많이 떨어진다.

5. 결론

초조대장경은 고려가 문화국으로서의 국위선양을 의도하던 중, 일대 국란에 직면하자 그 국란타개를 발원하고 현종 2년(1011) 무렵 조조에 착수하여 선종 4년에 완성하였다. 전체경론의 합수는 570합이 될 것이며, 권수는 근 6천권이 되며, 현재 국내외에 모두 210여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판각들이 아주 뛰어나며, 서지학적 가치가 아주 큰 것이다.

초조대장경의 서지적 특성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초조대장경 현존본이 얼마간 발굴됨으로 인해 그것을 바탕으로 한 북송본과 거란본의 형태나 특징을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② 초조본이 송본, 거란본을 그대로 번각한 것이 아니라 송본을 바탕으로 한 경우는 임사등의 수단을 취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손질을 가하여 판각했고, 거란본을 바탕으로 한 경우는 우수한 본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개판했다. 이것은 초조본 인쇄술의 독자성을 최초로 구명하는 것이 된다.

③ 御製秘藏詮에 들어 있는 長幅의 판화를 송본과 비교하여 판화의 위치가 다르고 판화기법이 섬세정교함을 보면 초조본의 판화기술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전기의 인쇄문화, 판화미술, 불교문화, 문화사 및 서지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재조대장경은 몽고군의 침입으로 부인사 소장의 초조대장경판이 고종 19년(1232)에 소실되자 역시 불력으로 이를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대장도감에서 재차 조조한 한역정장이다. 재조대장경의 판각은 강화의 대장도감에서 주관하였으나 남해에 분사도감을 두어 分管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이 남해에서만 조조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고종 23년(1236)부터 시작하여 동왕 38년(1251)까지 16년간에 걸쳐서 완성하였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이며, 총663합 1,562부 6,778권

(6,783권)으로 경판 총수는 8만 1천여매가 된다. 판각술은 초조대장경만 못하나 본문만은 동양의 어느 대장경보다 우수한 것이다.

재조대장경은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거의 초조본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판식 항자수 자체 등이 대체로 동일하다. 그 중 자체는 주로 구체의 방필로 되어 있으나 경에 따라서는 구체의 원필이 곁들여진 점도 양자가 비슷하다.

도각술은 초조본을 번각하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정교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초조본은 그대로 번각하지 않았다.

초조본을 저본으로 삼으면서도 송본과 거란본을 반드시 대교하였으며, 송신역경론, 개원록, 정원속개원록 등까지 두루 참고하고, 본문의 오탈, 착사, 이역 등을 논정하여 교정 또는 보수하고 또 경명 역자명, 권수, 합차의 이동까지 바로잡은 다음에 번각하였다.

그러므로 재조본과 초조본의 본문을 대조해 볼 때 경마다 문자의 차이가 발견되며, 그 중에는 장문이 보조된 것까지 있다.

비록 정교도는 초조본에 미치지 못하나 본문만은 동양의 어느 한역 대장경보다 우수함이 국내외에 정평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없이 수입해 갔으며 불교전파의 기본경전으로 삼아 왔다. 한 때는 경판 자체를 모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한 일도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우리의 대장경을 의존하고 부러워했다. 일본의 “北野經王堂板大藏經”, “縮刷大藏經”, “大正新修大藏經” 등이 모두 우리의 재조대장경을 정본으로 삼고 송본, 원본, 명본의 대장경으로 校合하였다. 이들 대장경이 현재 도처에 널리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조대장경의 본문이 얼마나 우수하며, 불교문화 연구와 발전에 끼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초조본은 재조본과 마찬가지로 판심이 없는 권자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無界로 刻字되어 있다. 항자수는 초조본과 재조본이 일반적으로 첫장은 22행 14자이고, 그 이하 장은 23행 14자로 되어 있다. 다만 초조의 “대반야바라밀다경”과 재조의 三本 “대방광불화엄경”만은 그 항자수가 각각 다른 것이 형태상으로 유의해야 하는 첫번째의 차이점이다.

여기서는 초조화엄경은 다른 경전과 동일하나 재조화엄경은 각항 모두 3자씩 더 많다. 이것은 재조화엄경만은 각항 14자의 대장경 형식을 버리고 17자의 國內傳本을 바탕으로 刻成한 것을 알게 한다.

초조본과 재조본이 일반적으로 23행 14자인 것은 거의 같으나, 재조

본에 있어서는 본문 재교의 결과 增文이 생겨 24항으로 增行된 것이 있고, 각항의 자수도 15자로 增子된 것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물론 초조본에서도 판각용 필사본의 탈자 錯寫를 바로잡아서 새겨야 한 것은 15자 또는 16자로 증자된 경우도 있지만 재조본에 비하여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국간인 초조대장경이나 재조대장경은 판제, 권차, 장차, 합차가 책장의 앞 또는 뒤에 표시하고 있다. 초조본은 그 표시위치가 대체로 각장 본문 앞 여백에 새겨졌으나, 재조본은 극히 드물게 그것이 초조본처럼 앞 여백의 위치에 표시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각장 본문 끝 여백에 새겨지고 있다.

간기는 초조본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재조본에는 권미제 다음에 “丁酉歲高麗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새겨져 있다. 초조본에서 간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당시 미묘했던 국제관계로 연호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판각의 정교도는 초조본이 송본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으나, 재조본은 초조본보다 훨씬 떨어진다. 초조대장경은 북송개보칙판대장경, 거란대장경, 정원입장경론, 송신역경론 및 국내전본을 바탕으로 판각하였다. 그 개판에 있어서는 북송개보칙판의 매항 14자 형식에 준거, 판서본을 마련하여 조조하였는데, 그 판각기법이 아주 정교한 편이어서 자체가 정연하고 자획에 勁方正한 筆力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각항 17자의 거란본과 국내전본에 의거하여 새긴 판본을 보면 그 기법이 뛰어남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재조대장경은 대부분 초조대장경 본문의 誤脫을 바로 잡은 다음, 뒤집어 붙이고 거듭 새긴 것이기 때문에 판각의 정교도가 초조대장경보다 많이 떨어진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장경 재조본.
김두종.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9.
———. “현존한 고려대장경에 대하여.” 학술원창립 20주년기념강연 논문 별쇄본. 서울 : 대한미국학술원, 1974.
수기.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권제 1-32.
운허용하. 불교사전. 서울 : 동국역경원, 1989.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제25.
의천. 대각국사문집 권제15.
정필모. 고려초조대장목록의 복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천혜봉. “고려시대의 전적.” 고고미술 184(한국미술사학회, 1969). pp. 72-13.
———. 나여인쇄술의 연구. 서울 : 경인문화사, 1979.
———. “전적 문화재의 수탈과 유출.” 신동아, 453호(동아출판사, 1997.6), pp. 562-573.
———. 한국서지학연구. 서울 : 동 간행위원회, 1991.
———.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 범우사, 1990.